

해외 防産 관련人士 초청 강연회 열려...

-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방위산업 -

한국 방위산업진흥회(KDIA) 주관으로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대한 해외방산관련人士 초청 강연회가 2월 12일 국내 방산업계 관련인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날 강연회에서 GE Aerospace社 Gordon C. Cucullu 항공우주사업담당 부사장은, 『앞으로는 어떤 대기업도 과거와 같이 모든 부문을 감당할수 없으며,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화를 추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防産市場과 관련하여—비밀이 아닌 정보임에도 획득 및 확인이 어렵고, 획득관련규정이 빈번하게 변경되어, 市場진입이 어느 국가보다도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또한 Cucullu 부사장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국내의 대기업이 골고루 방산에 참여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호아래 성장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숙련된 근로자와 기술자 및 과학자 집단이 풍부하여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찬양하였다. 이어 일반국민들이 방산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함께 한국의 방산업체가 순수연구개발이 부족하며, 모방개발 위주로 진행된다고 언급하면서, 자체적으로 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떠맡으려 아니하고, 국방부의 지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아쉬워하였다.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원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이며, 한국의 방위산업도 고도기술제품의 생산과 경영합리화를 기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방산 市場에서 습득한 기술을 민수제품 생산에 활용할수 있는 2重용도(Dual Use) 기술을 보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이어 회사자체의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오히려 국방부를 주도해나갈 것과 고도기술사업에서 협동작업의 역량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끝으로 Cucullu 부사장은 미국의 업체들이 한국업체와의 합작시에 한국측이 얼마만큼의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

고려파라슈트공업(주)과 공영상운(주)의 상호 및 대표이사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共榮商運주식회사	주식회사 新友情
대표	朴愚春	李忠鎬
주소	_____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빌딩 19층)
전화	_____	(02) 779-3811
FAX	_____	(02) 756-5208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고려파라슈트공업(주)	중우파라슈트(주)
대표	曹孝植	洪起眞
주소	_____	서울 용산구 동자동 5-1 (성산빌딩 304호)
전화	_____	(02) 752-3043
FAX	_____	(02) 755-2618

자금과 인력을 투입할 것인지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한국과 사업을 시작하는 미국업체의 요원들은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으므로 적극적인 지원과 주도적인 행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질의 및 응답에서 방위산업진흥회의 柳俊馨 상근부회장은 '90년도 프랑스와 이탈리아 방문을 예로들어, 이들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적극적이었으며, 특히 이탈리아는 SI(System Integration)면에서도 충분한 이전 보장을 제시하고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민간기업체일지라도 정부에 의해 많이 통제되는등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柳俊馨 상근부회장은 『防振會 등을 통한

홍보가 미국업체에 매우 유리하며, 실제 방진회를 이용하는 미국업체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널리 전파해 주기를 바란다고 피력(披瀝)하였다.

이에 대해 Cucullu 부사장은, 향후 기술이전과 관련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90년대에는 기술이전이 증대될 것이며, 한·미 방산업체도 공동설계와 제작등의 협력을 통해 양국 防産市場 뿐 아니라 세계시장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덧붙여 Cucullu 부사장은 한국이 동남아시아市場에서 경쟁력이 있으며, '90년대가 한국으로서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나, 실제적인 추진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助言)하였다.

廣林機械, 「보람의 일터」우수상 受賞

광림기계 (대표이사 : 尹昶懿)가 2월 20일 조신포털에서 열린 제3회 「보람의 일터」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79년에 설립된 광림기계는 인간 중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독특한 기업문화를 이루어나가고 있는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이다.

사람과 기술을 중시하고 사원의 자율을 존중하는 독특한 경영방식과 무제한의 아프터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이 회사는 「廣林精神」을 기반으로 노사신뢰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광림정신」은 사람 중심의 思考, 끊임없이 혁신하고자 하는 '모색의 정신'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사원들은 공동체의식 함양과 조직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받으며, 기술 위주의 경영을 통해 현장을 중시하는 技士문화를 확립해가고 있다. 또한 36개조의 「불평불만조」를 운영하여 종업원의 애로사항을 수렴·개선해나감에, 종업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로환경 개선, 복리후생 증대사업의

추진과 교육·연수사업의 활성화로 노사간의 의식개혁과 인간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있으며, 회사의 전 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고 育林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인재양성(산학장학금 지급), 산림 자원의 보전과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등 경영 전반에서 경영자와 종업원이 「한마음」의 의식속에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참다운 「보람의 일터」이다.

「보람의 일터」大賞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자의 삶의 質的 향상과 경영계의 노사협조체제 정착 및 세계속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轉機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賞이다.

이외함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람의 일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직장이란 모든 정성을 쏟고 自我를 실현하는 삶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맡은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속한 일터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만끽할수 있는 기업풍토를 조성하려는 운동이다.